

한국의 건축가 12 - 김인호(완)

Korean Architect, Kim In-Ho

김인호의 작품세계

박정우 / 계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Park Jung-Woo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3. 홍순인 (9807~9809, 예정)

1.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2.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3. 김인호의 작품세계

김인호의 건축은 해방과 6.25전쟁이후, 복구사업과 건설이 막 시작되던 1950년대 중후반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는 스승, 정경운을 도와 청구대학 문화동캠퍼스 본관(1956-58년 완공)과 청구대학 효목동캠퍼스 공학부(1956-60년 완공)를 설계하므로 그가 참여한 최초의 공식적인 작품이 선을 보이게 된다. 정경운과 김인호는 당시의 시대적 조류였던 직선적이고 기하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하에서도 한국적 건축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곧이어 1960년대의 군사정권의 내셔널리즘과 부합하여 아카데미적이고 역사주의적 성향의 기념비적인 건축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전통논쟁에 휘말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당시는 김종업의 주한 불란서대사관, 이희태의 절두산 복자기념성당에서처럼 모더니즘과 한국적 서정이 절묘하게 절충된 작품도 있었지만, 1966년 고건축의 완전한 복사판이었던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듬해 왜색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수근의 국립부여박물관이 그후 지속적으로 대두하는 전통계승의 본질적 의미를 논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경운과 김인호, 그들이 함께 찾아낸 한국성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보나 도리의 머리가 서로 맞물려 교차한 전통건축의 형식을 차용하거나, 기둥과 기둥간에 보나 서까래가 여유롭게 처마아래로 빠져나와 노출된 형상을 도입한 부분이다. 그들은 1965년 설계한 경북도청사의 외관에 각층의 캔틸레버마다 서까래형상을 변용하여 한국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형상이 반드시 한국적 모티프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계 겐조의 카가와 현청사(1955-58)만 하더라도 경북도청사의 외관과 많이 닮아 있어 오히려 그것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드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모티프는 정경운과 김인호가 결별한 이후로도 각자가 별도로 유사하게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²⁾

1)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114쪽
 2) 영남대학교 윤리대학 및 상경대학(1969), 명성예식장(1970, 현 문화교회)

김인호는 1966년 그의 첫 번째 대표작, 경북실내체육관(현, 대구체육관)이 현상설계에서 당선하므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후로 그는 수많은 체육관련시설을 설계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에 당선하여 그의 건축적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한편, 1981년 경북대학교 대강당, 이듬해에는 대구종합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에 당선하는 등 그는 문화관련시설에서도 뛰어난 건축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대구에서는 아직도 옥내집회와 관련된 대규모 행사는 상기의 작품들에서만 치루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인호의 작품세계는 이미 대구의 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바 있는 것을 새삼 언급하기가 적지 조심스러우나,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건축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본 기록의 의미와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김인호의 대표작 몇 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 건축적 특징을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부분들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집에서 소개하는 총 작품수 81점(물론 실제 그의 작품은 훨씬 더 많다)중에서 그의 놓칠 수 없는 족적이라 판단되는 것만을 필자가 임의로 발췌하여 재정리한 주요작품 년보는 <표1>과 같다.

형태적 이미지의 상징화

김인호의 건축적 사상과 비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지극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김인호가 살아온 시대성과도 무관치 않는 것으로 일제의 강점기와 해방후 혼란기에 의해 단절된 건축적 전통성을 6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집착하였고, 또한 7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절충하여 한국적 요소를 가미하거나 8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포스트모던적 시각으로 전통성을 해석하고자 하던 진보적 도정(道程)상에서 그의 참모습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김인호의 건축은 우선 감각적이고 대담하다. 그의 대표적 건축은 대개가 대형집회시설과 같은 것들이어서 구조적인 모티프를 찾아야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그에게 구조적 문제에 관해 항상 허심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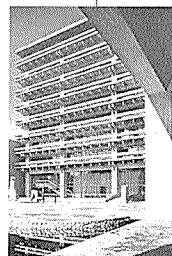
<표1> 주요작품 년보

1965	경상북도 도청사(정경운과의 공동작)/ 대구시
1966	경북실내체육관 현상설계 당선/ 대구시 강원도 춘천실내체육관/ 춘천시 뉴 코리아호텔/ 서울시
1968	대전충무실내체육관/ 대전시
1969	불국사경내 가람일괄 복원설계참여/ 경주시
1970	명성예식장(현, 문화교회)/ 대구시
1971	안동문화관/ 안동시 화랑의 집/ 경주시 대구 대덕산공원 개발계획 및 석도설계/ 대구시
1972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 당선
1973	대구스포츠허브/ 대구시 대구향교 복원설계/ 대구시
1975	부곡 온천지구 도시계획/ 창녕군 부곡
1976	경북고등학교 체육관/ 대구시 대구의사회관/ 대구시
1977	영주 부석사 복원설계/ 영주시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서울시
1978	대건고등학교 체육관/ 대구시 구미시청사 현상설계 당선/ 구미시
1979	백암온천호텔/ 경북 울진 매일신문사사옥/ 대구시 민족통일기원탑 계획안/ 판문점
1980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시 대구 카톨릭병원/ 대구시
1981	경북대학교 대강당/ 대구시
1982	경북대학교 인문사회관/ 대구시 동아쇼핑센터/ 대구시 대구시 종합 문화예술회관/ 대구시
1983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대구시 대구 두류 실내수영장/ 대구시 대구 두류공원 축구장/ 대구시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현상설계 당선/ 대구시
1985	부산 천태종 대법당/ 부산시 경북대학교 화학관/ 대구시 덕원중고등학교 체육관/ 대구시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산시 대구시 약사회관/ 대구시
1986	경북대학교 전산소/ 대구시 안병근 유도기념관/ 대구시
1987	대구과학고등학교/ 대구시 팔공산관광호텔/ 대구시
1988	경북대학교8호관/ 대구시 춘천리오텔/ 춘천시 경북일보/ 대구시

하게 의논할 수 있는 김현산, 권영환(현,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과 같은 구조전문가가 주변에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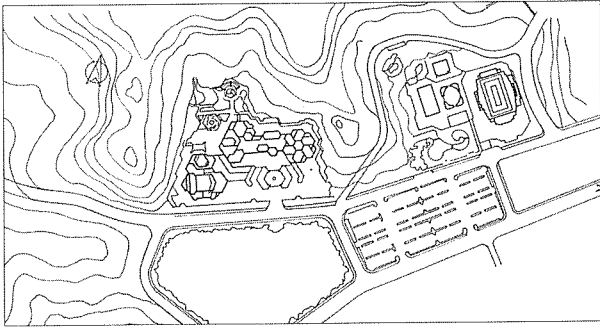
경북도청사



단계 건조의 카가와 현청사



명성예식장(현 문화교회)



대구 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실내수영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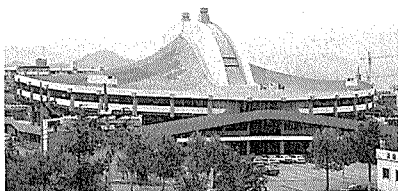
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인호는 작품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체적 형상의 이미지를 설정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는 오히려 기능적 해결을 통하여 서서히 주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편이었고, 일단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스케치해두었다가 설계실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그런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고, 거기에서 설정되는 개념은 건물의 용도와 완벽하게 부합토록 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건축가들의 이론적 빈곤을 생각할 때, 논리적 체계를 미리 세워두고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보다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논리성이 형성되는 쪽이었다. 그는 경북실내체육관에서 화랑이나 신라인의 투구형상을 지붕으로 옮겨놓고 스포츠정신을 상징화하였다고는 하나, 80m의 대공간을 덮을 수 있는 구조적 형상을 모색하던 끝에 나중에야 찾아낸 적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지붕에서도 감사고깔을 쓰고 곱게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마스터디과정에서 찾아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너무나도 절묘한 어휘구사와 개념설정엔 그의 성숙된 조형감과 어우러져 김인호건축의 절정을 이룬다.

김인호는 1984년 울산문화회관 현상설계에 응모하면서 처음으로 거북선의 이미지를 주제로 미리 설정, 외관의 형태적 이미지가 거북선을 상징하도록 계획하였다.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울산시의 막대한 자금원인 현대조선의 창업신화를 겨냥한 주제설정이었다는 것 같은데, 거북선의 이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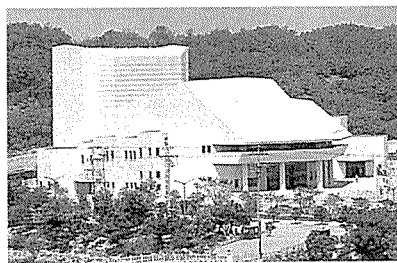
강조하려는 의도성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매스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외관만 어지럽게 연출되고 말았다.

김인호는 한국건축의 전통성을 찾고자 노력한 건축가이다. 그에겐 현대건축의 합리주의와 표현주의, 그 어느 범주에도 가둘 수 없을 만치 자유분방하고 다원적이며 절충적인 성향이 있다. 김인호건축을 표현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건축적 외관에는 다소 조소적 경향이 흐르고 장식적 요소를 자주 도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역사건축을 복원하거나 모사하기도 했고, 역사건축의 형식에 현대적 기능을 가지는 건축도 다루어 보았다. 또 김인호가 한국의 토속적인 모티프를 집요하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는 그의 건축을 차라리 전통주의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인호의 건축노정을 보면 그는 한국건축사를 자신의 전공으로 하여 교수생활을 하였고, 또 건축의장을 강의하면서 디자인원리와 요소는 물론 서양건축사 및 근대건축이론을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꽤 오랜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다. 오늘날의 한국건축에서 허다히 볼 수 있듯이 그의 작품에서도 어딘지 수입된 책에서 본 적이 있다는 추측을 낳을 만큼 세계거장들의 작품들과 유형적으로 닮은 부분들을 군데군데서 찾아볼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것은 김인호가 세계적인 근대건축을 접하면서 작품구상의 아이디어를 얻거나, 선행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얻는데 유용(有用)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어느 한 시기동안 에로 사리넨의 작품에서 암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표작 2점이 있기도 하다. 김인호와 사리넨의 건축에서는 그들의 대담한 발상이나 자신만의 특정한 스타일과 건축언어가 없는 표현의 다양성, 건축에 역사적인 의미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려는 노력, 상징적이고 모뉴멘탈한 건축수법이나 장식적 요소의 도입 등 두사람의 건축관마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그는 초지일관 외관의 형태디자인에서 한국의 전통성을 추구하고, 1982년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더 한층 성숙된 사고로 전통적 공간의 구현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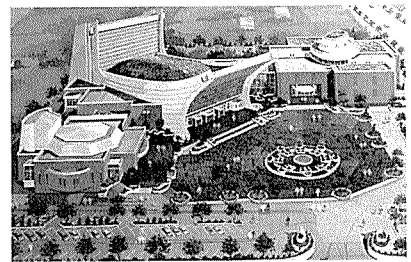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인호는 자신만의 한국적 건축언어를 창출하여 한국건축의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국의 건축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실내체육관(현 대구체육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문화회관 현상 응모안

전통의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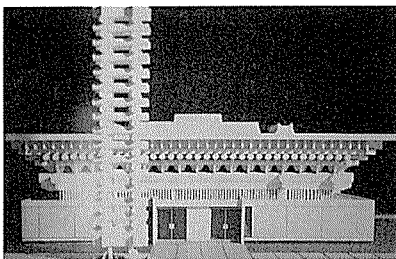
경북도청 - 정경운과 김인호는 청구대학 문화동 본관(1956-58)에서도 이미 국제주의 계열에서 벗어나 한국적 서정과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으나, 1965년의 경북도청은 그러한 로컬리티(Localcity)가 더욱 강조되고 그들 나름대로 이름불린 코리아니즘의 경향이 묘사된 작품이다. 길게 펼쳐지는 관공서건축물 등에서 자칫 느낄 수 있는 단조로움을 각층마다 처마처럼 캔틸레버를 빼내어 보를 노출시키고 또 장식보까지 만들어 더욱 리듬감을 강조하므로 외관을 경쾌한 이미지로 변신시켜 놓고 있다. 캐노피디자인은 현대적인 맛을 살려 가볍게 느껴지도록 형태에 변화를 준 것이 흥미롭다.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김수근이 설계한 한국관의 디테일도 경북도청사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은 이처럼 보나 서까래를 노출시키는 표현이 한국적인 정서로 쉽사리 전달될 수 있다는 관념에서 곧잘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실내체육관 - 김인호는 경북실내체육관 현상설계에 당선되므로 그후 실로 수많은 체육관련시설을 다루게 되는데, 춘천실내체육관이나 대전충무체육관도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의 실내체육관이라고 한다면 전국에서도 장충체육관(1960-63)이나 부산구덕체육관(1966)정도가 지어지고 있을 무렵이다. 또 1964년 동경올림픽이 열리면서 일본은 전후(戰後) 최초로 주목받는 정상 건축을 세웠다고 할만큼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단계 겐조의 국립육내종합경기장이 국내에서도 단연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김인호의 경북실내체육관은 단계 겐조의 것보다 형태면에서 훨씬 더 유사한 것으로 고래등의 유연한 선을 닮은 예로 사리넨의 예일대학 아이스하키 스타디움(1953-58)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단계 겐조도 경기장 설계 당시 사리넨의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한다. 사리넨은 중앙에 1개의 콘크리트 아치를 건물의 장변방향으로 걸치고 케이틀로 좌우의 웅벽으로 당겨 고정시킨 구조형식을 사용하고, 동경국립육내종합경기장에서는 중앙의 옴마루선을 타고 건너지르는 고장력케이블에 의해 셸을 형성하는 형식이었다. 김인호는 보다 큰 매스의 콘크리트 아치의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속을 비

우고도 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대나무의 구조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2열의 3힌지 아치와 외주의 텐션 링(Tension Ring)을 주골격으로 3힌지 서스펜디드 빔(3-Hinge Suspended Beam)을 걸쳐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이것은 페터 베렌스의 AEG터빈공장의 구조가 3힌지와 아치로 된 트러스로서 기초에서 꼭대기까지 일체화되어 지붕과 벽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나무구조의 아치도 사리넨의 제퍼슨 메모리얼(1948-64) 아치의 단면에서 얻어낸 발상이라는 추측은 지나친 비약이 될지 모르겠다. 단계 겐조나 사리넨의 스타디움에서 처럼 경북실내체육관의 경우에도 경기장내부에서 대형아치가 연출하는 현수선의 다이내믹한 형상은 경기에 열중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적극적이고 약동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김인호는 체육관지붕의 형상이 갖는 모티프가 신라인(화랑)의 투구이고, 이것은 체육관의 정정당당한 싸움, 경쟁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화랑투구로 보이는 복식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신라토기 기마인물상에서 쓰고 있는 모자나 금속제의 관모가 그중 가장 유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호는 체육관의 지붕뿐만 아니라, 산사(山寺)의 일주문을 닮은 출입구의 외관 등에서 콘크리트의 조소적 표현성과 어우러져 자신의 한국적 정서를 담은 상징적 표현의지를 보여주므로 전통적 요소를 적절히 인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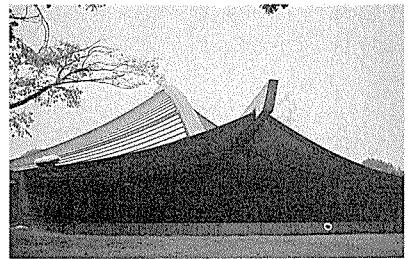
대구시민회관 - 1970년대가 되어서도 형태적 소재에서 전통성을 찾으려는 일반의 경향은 지속되고 있었다. 물론 부여박물관의 전통논쟁이후의 김수근의 주장처럼 형에 의한 한국성보다 전통적 공간해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법 설득력을 갖출 때이기도 하다. 5.16이후 제3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련의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스포츠관련시설은 6,70년대 관 주도사업의 단골메뉴였다. 대구시민회관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었지만, 김인호의 작품 어디에서도 그렇듯이 시민회관에서는 더욱 관료주의적 냄새가 나지 않는다. 김인호는 1972년 한해에 대구시민회관, 달성공원재개발, 서울KBS방송청사 등 3가지 설계경기를 겹치기로 준비하여 출품하는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민회관은 위치적으로 장단점을 안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당시의 도로조건이나 교통상황



몬트리올 엑스포67 한국관



동경 국립육내종합경기장



예일대학 아이스하키 스타디움

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다지 크지 않은 부지에 대공간이 들어서게 되면서 무대 후면벽과 대구역으로 들어가는 선로와의 거리가 십수미터에 불과할 수밖에 없도록 배치되어 공연자들에게는 지나치는 열차의 진동과 소음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도심부에 위치하여 시민의 도보접근이 용이하고 최근에는 지하철까지 개통되어 더욱 편리해진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극장동과 전시동이 'ㄱ' 자형으로 배치되어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외부공간은 이제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가까이 주된 어프로치는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광장쪽인데, 극장의 측면을 보고 접근하게 되므로 건물의 전체모습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면에 늘어선 5개의 거대한 열주는 디자인의 초점이 되고 있다. 외부의 조소적이고 대담한 스케일과 표현주의적 장식에 비해 내부 홀은 비교적 좁고 평범한 느낌을 준다. 대구시민회관은 경북실내체육관과 더불어 에로 사리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당시는 르 꼬르뷔제의 통상교회이후 조소적 경향의 건축이 많이 등장하던 때이기도 했지만, 에로 사리넨의 델레스 국제공항터미널의 웅대한 스케일감,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은 대구시민회관의 외관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면부가 살짝 치켜 올려지고 가운데가 낮아지다 다시 후면에서 약간 들려지는 유연하면서도 힘찬 지붕선의 처리(김충삼 소장은 긴 담뱃대의 형상을 그렸다고도 하는데)가 돋았고, 기둥이 지붕을 단순히 받쳐주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 지붕을 매달아 놓은 형식이 유사하다. 그외 전시동은 1층에 대·소전시실을 두었고, 2층에 소강당을 두고 사람의 출입동선은 별도로 광장쪽에서 외부계단을 이용하도록 처리하였으며, 3, 4층은 사무실공간으로 구성하고, 무의미해질 수 있는 옥탑층에서 보와 기둥을 좌우측 벽에서 빼내어 교차시킨 형상으로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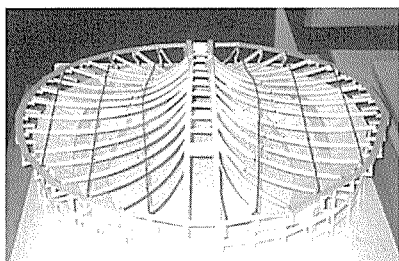
1980년대는 정부의 문화진흥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프로젝트도 대형화되어간다. 문화예술회관은 두류공원 남측기슭에 위치하여 상당몹을 전면에 두고 있다. 김인호는 부지를 직교 그리드가 아닌, 소위 라이트(F. L. Wright)의 그리드라 불리우는 정삼각형그리드로 분할하여 다이내믹한 형상을 연출하였다. 1,100여 석의 대공연장의 지붕선은 승무의 갑사고깔을 표상하며, 전시관 외관은 대구의 시화(市花), 목련화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

였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종래의 전통의 형태적 모색에서 발전하여 공간적 이미지를 탐구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외부광장의 중심에서 아리랑 곡선을 사용하여 옥외전시공간의 영역으로 꾸며졌으며, 전시관의 홀에서는 대청마루를 올라서면 뒷뜰이 보이는 전통의 민가형식을 도입한 듯 내부의 수(水)공간을 통하여 후정으로 시원하게 시야를 열어놓는 착상이 탁월하다. 문화예술회관은 내외부공간의 기능적, 조형적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의 마무리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두류공원부지내에는 문화예술회관외에도 배의 모양을 형상화한 실내수영장, 주변지형을 훌륭하게 이용한 축구장, 안병근 기념유도관, 천태종 대성사 등 많은 김인호의 작품이 인접해 있다.

1976년 김수근이 주도하던 남서울대운동장 건설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김인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육관련시설을 다루었다는 경력을 인정받아 전체시설에 관한 계획까지 완성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1977년 잠실야구장만을 설계하게 된다.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이 성(李 盛)의 증언에 의하면, 잠실야구장은 경기를 위한 충분한 시설과 관람하기 좋은 내야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붕폭을 외아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감아오면서 넓어지도록 처리하여 일체감을 주게 됐으며, 측면의 상승하는 선을 가진 외관은 마치 편심에 의해 튀어나갈 것만 같은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고 타구의 스피드감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김인호는 한국적 모티프를 생각해내는데, 운동장전체의 공간구성이 우리 고유의 악기인 장고의 측면 형상을 상징한다고는 하나, 꿈보다 해몽과 같은 다소의 억지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통의 직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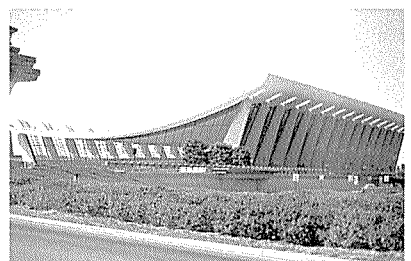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김인호는 1956년부터 한국건축사를 전공하였고, 교수시절에는 사찰건축의 조영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5.16이후, 관 주도하의 크고 작은 전통건축의 복원에 직접 참여하였고, 1970년에는 화랑교육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경주 화랑의 집을 전통양식으로 설계하게 된다. 당시는 이미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이 1966



경북실내체육관 뼈대모형



대구시민회관 전경



델레스 국제공항터미널

년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역사건축의 모사(模寫)라는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을 때였다. 또 그 때는 최초로 조소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소실될 염려가 없는 불연재라는 흥미로운 해석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를 광학문복원공사(1968), 아산 현충사(1969) 등 전통양식의 건축에 도입하기 시작할 때였다. 이 화랑의 집도 관의 의사에 따라 지어진 경주 최초의 철근콘크리트조 전통양식 건축물로 등장하게 된다.

화랑의 집은 우선, 신라사찰의 가람배치형식을 인용하여 일주문을 지나 불단으로 이르는 점승(漸昇)적 과정을 축약시켜 놓은 인상을 받는다. 2층 누각형식의 정문입구는 층단을 높혀 시선을 끊어 공간의 위계를 갖추었고, 정문을 통과하는 동안은 보이지 않던 가장 높은 레벨의 강당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점차로 상승하는 기대감과 정신적인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길지 않은 거리에서도 계단에 의한 레벨의 변화는 상당한 거리감을 강조하고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 화랑교육원은 향교의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동재와 서재와도 같이, 좌우에 교육생들의 숙사를 병치시켰다. 이 숙사부분은 맞배지붕을 동일한 레벨로 반복하여 올라가며 연속시키므로 공간적 상승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ㄱ'자공간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공간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김인호는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지 간에 화랑수련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주는 이미지가 그렇고, 클라이언트라할 관의 요구 또한 전통양식의 계승을 원했을 것이다. 그는 단순한 전통의 형태적 모사에 머물지 않고, 부지의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중정형식을 도입하여 한국적 공간장출을 꾀하였으며, 신라의 가람배치와 향교의 배치형식을 일체화하여 심신수도의 장으로써의 수련원 이미지를 극대화하므로 전통의 직유를 독창적으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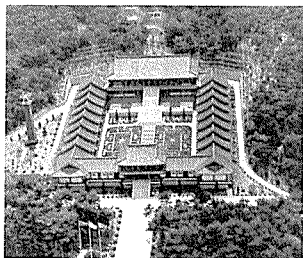
그밖에도 1906년의 대구부사(大邱府史)에 실린 사진을 토대로 중창설계된 영남제일관문(1979), 동화사 동화문(1987) 등이 있으나 건축적 공간의 스케일을 느끼게 하는 것은 3만 5천평 대지위에 세워진 연면적 5천평 규모의 부산 천태종 삼광사(1983)나, 대구 두류산공원 언저리에 위치한 대성사(1985) 등을 들 수 있다. 삼광사의 대법당은 건물 네 모서리에 팔각정 형태의 피난계단실을 두고 브릿지형식으로 법당과 연결하므로 각각의

지붕들을 자유롭게 처리한 것이 외관을 특징짓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기서도 그의 대형집회시설과의 특별한 인연을 생각나게 할만큼 대규모의 법당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또 1979년에는 판문점에 높이 300m에 달하는 민족통일기원탑을 전통양식으로 건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클라이언트의 불확실한 태도로 인하여 무산되므로 미발표로 그치고 말았다.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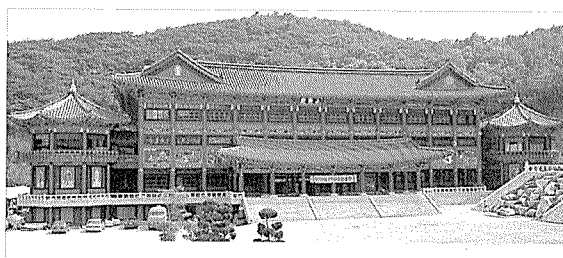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김인호는 그가 남긴 스케치 한 장은 전혀 보존된 것이 없는 건축가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설령 그가 생전에 실천하고자 했던 "무소유"의 철학이 빛을 결과라 할지라도 그의 건축정신을 담은 글과 그림을 어느 누구도 챙겨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가슴을 치게 하였다. 필자로서는 김인호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인호 자신부터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성품이 아니었으므로 누구를 탓하기 보다 단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을 뿐이다. 자료를 뒤적이면서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정리되어 온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정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다. 각 지회와 본회간에 보다 긴밀하고 조직적인 정보교환과 교호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구건축계도 「대구예술30년사」나 「대구시사」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어느 지회보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대구건축의 역사가 보다 완벽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족이지만 김인호의 서거소식을 당시 제때에 알린 단체는 대한건축학회뿐이었다. 그것도 고인의 영정하나 없는 단 몇 줄의 부고기사가 1988년 7월호 말미에 초라하게 실려 있었다.



화랑의 집 전경



화랑의 집 숙사부분 - 점승적 효과가 살아나 보인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 대법당